

그림책이 들려주는

자연과 생명 이야기



유리 작가展



2018.5.17 - 6.15

오전 9시-오후 6시, 월요일과 공휴일 휴관

2018 그림책 원화전

그림책이 들려주는

자연과 생명 이야기

그림책 작가 유리

경기도 여주의 나지막한 숲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.
자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작가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.
느리지만 '날마다 꾸준히'의 힘으로 그림을 그립니다.

대표작 : 수박이 먹고 싶으면, 돼지 이야기, 대추 한 알, 강아지똥별



작품 관람 및 프로그램 안내

■ 전시 작품 관람

- 화~일요일 : 09:00~18:00 (월요일과 공휴일 휴관)
- 2층 제2전시장
- 유리 작가 원화 및 콘텐츠 전시, 포토존 운영
- 작가가 읽어 주는 그림책 상영
- 원화이야기(전시 작품 소개)
시간 : 10:00 / 11:00 / 14:00 / 16:00
- 무료체험 : 그림책 읽기, 원화 컬러링, 캘리그래피, 감상 나누기

■ 강연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

그림책이 들려주는 생명이야기(유리작가)

- 일 시: 5.26.(토) 14:00
- 장 소: 교육4실
- 대 상: 가족 40명 (사전접수)

작가는 어떻게 책을 쓸까? (김장성작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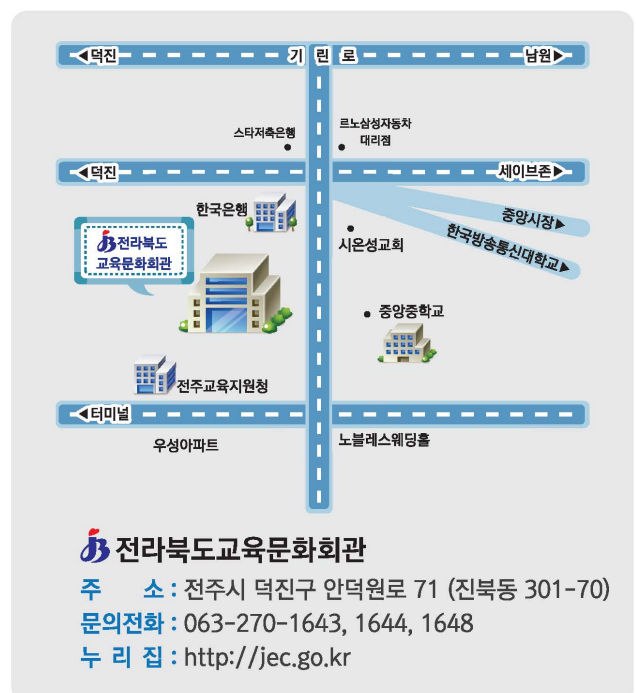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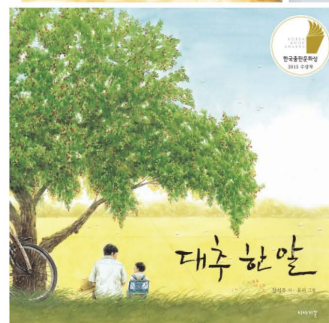
- 일 시: 5.24.(목) 13:00
- 장 소: 교육4실
- 대 상: 청소년 40명 (사전접수)

‘대추 한 알’에 담긴 삶과 문학 이야기(장석주작가)

- 일 시: 5.31.(목) 19:00
- 장 소: 교육4실
- 대 상: 지역주민 40명 (사전접수)

수박키우기와 우리 인생 이야기 (신건승명인)

- 일 시: 6.7.(목) 19:00
- 장 소: 교육4실
- 대 상: 지역주민 40명 (사전접수)



※ 누리집에서 사전접수: 5월1일부터 순서순 접수